

눈총 받던 순천·강진의료원, 코로나 시대 빛을 발하다

비리·적자로 한때 폐원 위기... 감염병전담병원 담당 존재까지 증명 전국 유일 의대없는 전남서 확진자 86% 전담 안정적 의료 서비스

미운오리새기 취급받던 전남도립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며 백조로 변신하고 있다. 임직원 비리·방만 운영·불사정신 미흡 등으로 한때 폐원 요구에 직면했던 두 공공병원은 코로나 시대를 맞아 도내 확진자 치료를 전담하고 광주·대구와 병상 나눈다. 순천의료원이 2명의 광주 확진자를 맡았고, 이 가운데 39명이 완치돼 집으로 무사히 귀가했다. 나머지 확진자 35명은 여전히 강진의료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확진자 폭증으로 곤경에 처한 대구와 병상 나눔을 실천했다. 대구에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지역 내 병원 배정을 받지 못한 환자 30명을 순천의료원에서 치료한 뒤 가족 쪽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최근 전국의 (인턴·레지던트) 파업 사태에서도 두 공공의료원은 24시간 응급실, 일반 진료과 정상 운영을 통해 지역민

들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위기 상황에서 존재 가치를 증명한 두 공공병원은 그러나 한때 임직원 비리, 방만·부실 운영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여기에 적자 누적으로 폐원, 민간 매각 요구까지 나오면서 사면초가에 내몰리기도 했다. 방만 운영, 임직원 비리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윤 추구가 아닌 공익 실현을 우선해야 할 공공병원에 환자 경영을 강요했을 때 빚어질 지 모를 과잉 진료 등 폐해는 주목받지 못했다.

특히 전남의 두 공공의료원은 지난 2013년 '누적적자'가 빌미가 돼 폐원된 진주의료원과 대비되며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존재 가치를 독특하게 증명하고 있다.

특히 전남의 두 공공의료원은 지난 2013년 '누적적자'가 빌미가 돼 폐원된 진주의료원과 대비되며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존재 가치를 독특하게 증명하고 있다.

특히 전남의 두 공공의료원은 지난 2013년 '누적적자'가 빌미가 돼 폐원된 진주의료원과 대비되며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존재 가치를 독특하게 증명하고 있다.

특히 전남의 두 공공의료원은 지난 2013년 '누적적자'가 빌미가 돼 폐원된 진주의료원과 대비되며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존재 가치를 독특하게 증명하고 있다.

특히 전남의 두 공공의료원은 지난 2013년 '누적적자'가 빌미가 돼 폐원된 진주의료원과 대비되며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존재 가치를 독특하게 증명하고 있다.



임직원 비리 등으로 한때 폐원 여론에 직면했던 전남도립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이 코로나 19 위기를 맞아 도내 확진자 치료를 전담하고 광주·대구와 병상 나눔까지 펼치면서 재평가받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었다. 경남 진주의료원은 복지 축소를 의인 흉중표 당시 경남지사 체제에서 폐원됐다. 코로나 19를 겪고 나서 재설립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공공의료원이 없는 광주에서도 최근 신설 논의가 시작되기도 했다.

다만 지난 3일까지 전남에서 발생한 코

로나 환자 가운데 연세가 많거나 위중한 12명의 환자를 전남대·조선대·화산전남대 병원으로 보내 치료받게 한 점은 꼽힐만한 대목이다. 도내 의과대학 및 부속대학병원이 없어 상급병원으로 이송 보낼 수밖에 없는 전남의 형편이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지방의료원이 경영에 대한 고민 없이 필수 공익적 기능과 지역사회의 책임이외의 공공적 역할에 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광화문 집회 인솔 목사 고발기로

"참가 사실 숨기고 명단 축소...역학 조사 고의 방해"

광주시가 8·15 서울 광화문 집회 광주시 참가자를 인솔하고도 역학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혼선을 준 목사를 고발한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코로나19 시민 보호·엄정 처벌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광주 410명 확진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확진자가 집회 참가와 인솔 사실을 숨기고, 참가자 명단을 축소해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 교인 상당수가 집회에 참여했는데도 일부 가족 명단을 누락하고, 이들 중 일부가 확진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역학 조사를 고의로 방

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청구는 추가 확진 등 사실관계를 확인 후 검토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 명령에도 기대만큼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의로 허위 진술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등 역학 조사를 방해하면 형사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방역을 방해하는 일탈·위법 행위 처벌의 엄정성, 일관성, 신속성을 확보하고 처벌 기준, 고발 주체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지난 3일 구성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고난·역경 딛고 다시 태어나다'

전남도 10월 8~9일 '실패박람회' 온라인 진행

전남도가 도내 다양한 실패경험을 사회 자산화하고 재도전을 응원해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10월 8일부터 이틀간 '실패박람회'를 개최한다.

'실패박람회'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전남을 포함한 6개 시도에서 추진 중이다. 전남도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를 담은 '리본(Re-born)박람회'를 부제로 선정해 실패박람회를 추진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표한 온택트(ontact) 방식으로 도민들과 소통하며 공감대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세부 프로그램은 ▲도민 참여 속의 토론 ▲상담마당 ▲실패사례공모전 ▲실패학 콘서트 ▲응원 및 속의도론 참여 댓글 이벤트 ▲유튜브 구독 이벤트 등으로, 다양한 행사가 온라인상에서 펼쳐진다.

특히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도민 참여 속의도론은 청년과 공동체, 마을·사회적 기업, 여성 분야의 4가지 주제로 진행되며, 전문가와 정책 수혜자인 도민이 직접 참여한다. 세부 프로그램은 ▲도민 참여 속의 토론 ▲상담마당 ▲실패사례공모전 ▲실패학 콘서트 ▲응원 및 속의도론 참여 댓글 이벤트 ▲유튜브 구독 이벤트 등으로, 다양한 행사가 온라인상에서 펼쳐진다. 특히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도민 참여 속의도론은 청년과 공동체, 마을·사회적 기업, 여성 분야의 4가지 주제로 진행되며, 전문가와 정책 수혜자인 도민이 직접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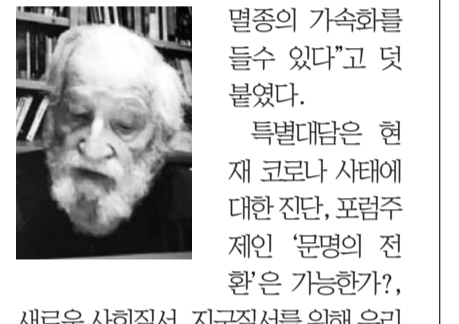
정 총리는 "사회적 피로도도 함께 고난 확인된 방역 조치 효과를 감안한 것으로, 뼈아픈 고통을 감내한 국민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연갑뉴스



"인간 생존 긴급한 위기 '슬픈 세계' 직면"

광주시·광주문화재단, 노엄 촘스키 화상특별대담

세계적인 석학이자 서구 지식인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히는 노엄 촘스키(이하 촘스키·사진)와 화상 특별대담이 열려 눈길을 끈다. 미국의 언어학자이자 철학자, 사회비평가이며 정치가로도 활동하는 촘스키와의 대담이 국내 국제학술포럼을 통해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별종의 가속화를 들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대담은 현재 코로나 사태에 대한 진단, 포럼주제인 '문명의 전환'은 가능한가?, 새로운 사회질서, 지구질서를 위해 우리는 어떤 정치·문화적 실천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촘스키는 이전 세계와는 다른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우리(Human)가 결단력 있게 행동해야 하는 순간이 왔다"며 "서양 중심의 세계질서가 동양 중심으로 전환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전 세계와는 차원이 다른 새 질서가 등장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광주를 방문할 수 없지만 1시간가량 이어진 화상 대담에서 촘스키는 "현재 상황을 '슬픈 세계'라고 운을 떼면서, 조직화된 인간 사회의 생존을 위협하는 긴급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와 문화재단은 오는 10월 개최하는 2020아시아문화포럼을 앞두고 촘스키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의 특별대담을 최근 마련했다. 올해 14회를 맞은 포럼은 '문명의 전환: 뉴노멀 시대, 문화연대의 가능성'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화상 특별대담에서 촘스키는 "지구온난화와 핵전쟁이 지구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특히 지구형 생명체 현재까지를 이르는 '홀로세'(Holocene) 이후 인류가 지구환경에 큰 영향을 준 시기를 일컫는 '인류세'(Anthropocene)의 가장 큰 문제는

인류세'의 가장 큰 문제는"이라는 말을 던졌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정총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2단계로 조정"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수도권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해 앞으로 2주간 2단계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주간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시행해왔다. 노인시설과 요양원 등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3일부터 11일째 100명대 초반을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데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한 판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부는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사회적 피로도도 함께 고난 확인된 방역 조치 효과를 감안한 것으로, 뼈아픈 고통을 감내한 국민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연갑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 과정)

- 일 시 : 2020. 9. 15(화) 오후 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산수오거리 → 무등산 방향 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 풍수+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 2020. 9. 8(화) 오후 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 0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백과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땅 매매

화순 도곡 신덕리 계획관리지역 임야 20530㎡ 야산·축사허가 및 지붕 위 태양광 설치 가능 선로확보가 14억원(조정가)

- ▶ **남구 대촌 지석동** 자연녹지 답1003.5㎡ (대촌산업단지4차선 도로점, 아파트 2천세대 예정) **29억원**
- ▶ **남구 대촌 안과동** 답1857㎡ **2억8천5백만원**
- ▶ **남구 대촌 양촌동** 답3875㎡ **3억5천5백만원**
- ▶ **광산 수안동** 상업용 4층 건물 대지 480㎡, 연 998㎡, 엘리베이터 아파트 밀집지역 보 **2억9천만원**, 월 **1640만원**, 용 **12억원** 매 **42억원**
- ▶ **나주 남평 고촌리** 생산녹지 2585㎡ **3억5천5백만원**

대한공인중개사무소 [재판] **010-6683-3274**
광주광역시 남구 대촌 포충로 606-2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들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밀집공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세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을 공고함.
1. 분묘의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장동동 산285-1
2. 분묘의 위수: 2기
3. 개장방법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세청에 의거 공고인 임의로개장
- 유연분묘: 공고기간중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협의개장
4. 개장비용: 개장비용 후 잔액을 상속
5.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5개월
6. 안락장소: 전남 곡성읍 곡성읍 신기리 산167-1 창계원묘지
7. 안락기간: 불함 후 10년
8. 신고 처: 010-6515-7016
9. 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 임을 입증하는 호적, 제적등본, 묘지신고서 등
10. 기타사항: 상기 제반에 의하지 불분명하여 논란이 될 수 가발된 분묘에 대해서도 이 공고로 갈음함.
2020년 9월 14일
공고인 (주)정 김경연

분할 합병 공고 (재판지외의 및 주권제한공고)
주식회사 에스케이 (이하 '에스케이')와 주식회사 신종리(이하 '신종리')은 2020년 09월 09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로 '감'과 '고' 재산의(영역) 일부(광주광역시 북구)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유' 합병하고 '감'은 존속하기로 하였으며, 상법 330조 3항에 의거 '감'의 분할되는 재산부채중 '감'의 전가공사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유'에게 승계하기로 결의 하였기에 분할행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인 9월 14일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고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지 마라 며, 이의가 없으면 분할행위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 및 회고합니다.
2020년 9월 14일
---아 래---
1. 분할 합병 대상: 전기공사(전남-01811호)
2. (감) 상 호: **주식회사 에스케이**
대표이사: 김진성
주 소: 전남남도 담양군 대전면 대창5길 13-1
3. (유) 상 호: **주식회사 신종리**
대표이사: 최원수
주 소: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미리산길 28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光州日報

제 996호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9월19일(토) **▲광주금강산학회** 9월19일(토) 충북 포암산·만수봉·용암산, 봉선동 롯데마트 앞 06:10, 진원동식자재마트 앞 06:20, 영주체육관 06:30, 한국병원 앞 06:40, 문예회관정문 06:50, 비엔날레주차장입구 07:00 * 다음카페 광주금강산학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광주호산회 9월19일(토) 전북 순창, 남원, 송대봉, 체계산 출렁다리, 풍암동 롯데마트 7 주차장 출발 06:30, 롯데백화점 07:00, 예술회관 후문 07:15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9월25일(금) **▲광주호산회** 9월25일(금) 무박2일 설악산 대청봉 천불동계곡 B코스 울산바위 권금성케이블카,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22:00, 롯데백화점 22:30, 예술회관 후문 22:45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